

지역 소식통

2020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교육 실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농업인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인증 방법과 관련규정, 이력추적 관리제도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김제사무소 박소영주무관 강의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우수관리(GAP)기준 및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실천요령, 고품질생산기술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죽산의용소방대 성금기탁

김제시 죽산면 의용소방대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김제시에 후원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코로나19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죽산면 의용소방대는 심폐소생술, 합동안전교육등의 꾸준한 교육과 떡국떡 전달, 떡국 나눔 등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내고장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정보통신과 농촌일손돕기 봉사

김제시 정보통신과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일손돕기 지원에 나섰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미숙한 손이지만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청하면 관동마을 강남철씨 배 과수원 농장에서 열매수기와 배꽃 순자르기 등 일손을 도우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농장주인 강남철씨는 "열매수기는 적기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열심히 일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완주군,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 등 총 1만 2400여 가구 정부재난지원금, 18일부터 접수시 선불카드 즉시 지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완주군은 카드 미소지자 등 1만2천여 가구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이들 전(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완주군의 경우 4만2,195가구가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3가지로 ①기초수급·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신청 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②신용·체크카드 소지자는 은행에 온·오프라인 신청하면 포인트로 충전해 주며 ③카드 미소지자나 신용불량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시 선불카드를 지급 받는다.

완주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수급자 등 8,801가구(20%)에 대해선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또 이달 11일부터 신청하는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2만1,097가구에 달하는 등 전체 가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온·오프라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완주군은 또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와 신용불량자, 은행 신청이 힘든 가구 등이 총 1만2,425가구(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 이달 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즉석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방문 신청자들에게

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 날짜지정 접수, 마스크 5부제 방식 접수, 방문 신청 지급 등 실정에 맞춰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구수가 1만을 넘어서는 봉동읍과 6,500여 가구를 겨냥하고 있는 이서면은 '5부제 적용'에 나서고, 용진읍과 소양면 등 6개 읍면은 마을별로 날짜를 달리 지정해 혼잡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춰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 개설과 전담인력 배치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세대에 관계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도 권장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주민들에게 지급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액은 257억7,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군비 부담이 20억2천만원,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청 3개 국(局)직원들이 3개의 전통시장을 돌아가며 5월에 3번 점심식사도 하고 정도 보는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이 실시시점에서 첫 깃발을 올렸다.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

완주군, "밥도 먹고, 장도 보고, 상권 살리고" 일석삼조 운동 추진

"식사도 하고 장도 보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다니 일석삼조(一石三鳥)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완주군청 3개 국(局) 직원들이 3개의 전통시장을 돌아가며 5월에 3번 점심식사도 하고 정도 보는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이 13일 삼례시장에서 첫 깃발을 올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군청 행정복지국 9개 과(소) 직원들은 이날 '삼례 5일장'에 맞춰 시장 근처에서 개별적인 점심식사를 한 후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필요한 물품을 저마다 한 꾸러미씩 구매했다.

삼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예전의 북적이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군청 직원들의 장보기 행사로 금방 활력을 되찾았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물건을 샀고, 상인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다.

행정복지국은 오는 20일에 '봉동 5일장'에서, 23일에는 '고산 5일장'에서 각각 밥도 먹고 장도 보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다니 일석삼조(一石三鳥)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완주군청 3개 국(局) 직원들이 3개의 전통시장을 돌아가며 5월에 3번 점심식사도 하고 정도 보는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이 13일 삼례시장에서 첫 깃발을 올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군청 행정복지국 9개 과(소) 직원들은 이날 '삼례 5일장'에 맞춰 시장 근처에서 개별적인 점심식사를 한 후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필요한 물품을 저마다 한 꾸러미씩 구매했다.

삼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예전의 북적이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군청 직원들의 장보기 행사로 금방 활력을 되찾았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물건을 샀고, 상인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다.

행정복지국은 오는 20일에 '봉동 5일장'에서, 23일에는 '고산 5일장'에서 각각 밥도 먹고 장도 보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다니 일석삼조(一石三鳥)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완주군은 또 주 2회의 구내식당 휴무 일에는 읍·면의 골목상권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 가입 상가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국가예산 확보 활동 총력전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적극 건의

박성일 완주군수가 정부 부처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박 군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차례로 방문, 완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및 사업비 반영을 중점 건의했다.

가장 먼저 국토부를 방문한 박 군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사업 반영시 새만금 신항만과 내륙 물류수송을 연결하는 철도수송체계 확충으로 기업유치에 용이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도지선(용진국도17호~산단) 개설사업, 소양~동상(국지도55호) 시설개량, 완주IC~전주 호성동(국도17호선) 확장 등 도로SOC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를 들른 박 군수는 양충모 재정관리관을 만나 출판산업 복합



13일 박군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차례로 방문, 완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및 사업비 반영을 중점 건의 했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비 3억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북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 77억원 반영 등 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작년에 기재부 단계에서 사업반영이 보류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반영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를 방문해 사회적경제 1번지 완주에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해 전국적 성공모델 확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립사회적경제 인재양성센터' 유치 지원과 21년 사업비 1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완주군은 5월 한 달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집중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추가 부처 방문 등 국비 확충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도 및 정치권과도 연계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교월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재개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대면 사업)을 재개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전면 중단된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조치사항으로 소독제, 마스크 구비 등 사업 재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방역관리 이행을 점검했다. 또한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발열체크, 참여자 마스크 착용,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발열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즉시 귀가조치 하고 추가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자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인 1조로 운영한다.

교월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총 40명 참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1일 3시간(월 30시간)으로 만근 시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매주 3일 관내 환경정비 활동으로 마을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